

‘웃음박사’ 김영식씨 보성녹차 홍보대사

보성군이 최근 김영식(사진 왼쪽) 한국 웃음요가 소장을 보성녹차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웃음 요가의 권위자인 김 소장은 15년간 전국을 돌며 4천500여 회 이상의 강의를 했다.

이번 홍보대사 위촉은 김 소장이 지난 6월 보성군이 운영하는 자치포럼 강사로 초빙돼 ‘웃음 요가’의 초대라는 강연을 한 것이 계기가 됐다.

김 소장은 “앞으로 전국은 물론 세계에 보성녹차 뿐만 아니라 보성소리 홍보를 위해서 발 벗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지광원기자 light64@

한전 전남본부, 초등생 정보화교육



한국전력 전남사업본부(본부장 김귀중)는 4일 광주시 북구 오치동 본부 교육장에서 초등학생 42명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했다.

<한전 전남본부 제공>

조선대 교수평의회 제 21대 집행부 출범



조선대 교수평의회는 최근 제21대 집행부 출범과 함께 개소식을 가졌다. 조범준(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신인 의장과 전호중(세번째) 총장이 케이크를 자른 뒤 축하하고 있다.

<조선대 제공>

농협 전남본부 ‘농업인 자녀 영어캠프’ 지원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는 4일부터 13일까지 강원도 원주시 삼지대 어학원에서 열리는 ‘농업인 자녀 영어캠프’에 지역 농협인 자녀 14명이 참가하도록 지원했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전남도 ‘원어민 영어캠프’ 참가한 美 대학생들

“봉사하며 한국문화체험 .. 또 오고 싶어요”

55명 참여...14일까지 초·중학생 810명 영어 지도

“국내 교사 1명과 회화수업 공동 진행, 소통 원활”

“영어 배우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조금마한 도움이라도 된 것같이 보람을 느낍니다.” 한국 초·중학생들의 영어 지도를 위해 미국에서 원어민 교사 55명이 날아왔다.

지난 해 전남도와 자매결연한 미국 오리건주 포클랜드주립대 학생 45명에 이어 올해에는 이 대학과 미주리대에서 55명의 언어문화 자원봉사자가 참여했다.

지난 달 23일부터 8월1일까지 해남·완도 등 17개 시·군 초등학생 636명을 대상으로 1기 캠프를 마친 교사들은 “학생들의 영어 학습 열기와 알찬 프로그램으로 즐겁게 보람됐다”고 입을 모았다.

캠프 도중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도 봉사활동을 쉬지 않은 캐롤라인 지크(여·미주리대 졸업생)씨는 “가벼운 부상에 불과할 뿐이고 봉사하러 왔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도 않다”며 “2기 캠프에도 참가하겠다”고 말했다.

다니엘 코플렌(미주리대 졸업생)씨는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감사하고, 프로그램 중에 원어민강사들이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회화 수업을 원어민 교사 1명과 국내 교사 1명이 공동진행함으로써 의사 소통과 수업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됐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번 캠프는 원어민강사와 학생이 합숙을 하는 등 24시간 영어로만 생활하는 회화 적응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



전남도 영어체험캠프 원어민 자원봉사자로 나선 미국 대학생들이 캠프에 참가한 초등학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캠프 운영비는 전남도가 전액 부담 참가비 없이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 학생들은 입소와 퇴소 때 각각 실력진단평가를 받아 자신의 영어실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도는 이번 캠프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 22명을 선발해 올 겨울방학 때 미주리대에 4

주간 어학연수(전남도 부담)를 보낼 예정이다.

한편 캠프 참가 원어민강사들은 1기 캠프를 마친 뒤,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목포 해양문화축제와 진도 국악축제, 해남 대흥사 템플스테이 등 남도문화 체험 시간을 가졌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조세희, 네티즌 선정 ‘한국 대표작가’

한국인 필독서엔 황석영 ‘바리데기’

젊은 작가 부문 정이현씨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의 조세희 작가가 올해 네티즌이 선정한 ‘한국 대표작가’로 뽑혔다.

인터넷서점 예스24가 지난달 31일까지 진행된 ‘제5회 네티즌 추천 한국 대표작가’ 온라인 투표 결과 조세희 작가가 1만846표(16.4%)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8천675표(13.1%)를 얻은 김훈 작가, 3위에는 5천534표(8.4%)의



<조세희씨> <황석영씨>

이문열 작가가 올랐다.

또 ‘한국의 젊은 작가’ 부문 투표에서는 지난주 종영한 ‘달콤한 나의 도

가 1만899표(17.2%)로 1위, ‘아내가 결혼했다’의 박현옥 작가가 7천932표(12.5%)로 2위, 김영하 작가가 6천333표(9.5%)로 3위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2007년 6월부터 1년 동안 출간된 한국 문학 작품 중 한국인 필독서를 선정하는 ‘2008 한국인 필독서’ 투표에서는 황석영 작가의 ‘바리데기’가 1만2천445표(17.9%)로 1위에 뽑혔으며 공지영 작가의 ‘즐거움 나의 집’(9319표)과 박완서 작가의 ‘친절한 복희씨’(5천777표)가 뒤를 이었다.

‘제5회 네티즌 추천 한국의 대표작가’ 온라인 투표에는 모두 4만596명의 네티즌이 참여했으며 투표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yes24.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 애육원 ‘보은 음악회’ 눈길

광주지역 한 아동복지시설의 중창단이 도움을 준 후원자와 이웃 주민들을 위한 보은 음악회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4일 광주시 북구 동림동 아동복지시설인 광주 애육원 강당에서 원생으로 구성된 중창단 ‘꿈을 품은 메아리’가 시설 후원자와 이웃 주민 등 150여명을 초청해 음악회를 열었다.<사진> 이번 음악회는 지난 6월 광주시가 주최한 ‘제1회 화음으로 한마음 가족애(愛) 음악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받

은 ‘꿈을 품은 메아리’가 후원자와 이웃주민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했다.

중창단은 이날 초청된 후원자들과 이웃 주민들에게 1시간여 동안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등의 노래와 뮤지컬을 선보여 기립박수를 받았다.

광주애육원에는 보호자가 없거나 가정환경이 어려운 어린이와 청소년 116명이 함께 살고 있으며 ‘꿈을 품은 메아리’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생까지 남녀 35명으로 구성됐다.

“학대 피해 아동에 희망을”

소설가 이외수씨 ‘나눔티셔츠’ 홍보모델로

소설가 이외수씨가 학대 피해 아동을 돕기 위한 작품을 기증하고 이 작품이 찍힌 티셔츠 홍보모델로 나섰다.

4일 어린이재단은 “이 씨로부터 기증받은 작품 ‘아이야 희망은 아름다운 거란다’를 티셔츠로 제작해 이날부터 온라인 쇼핑몰 11번가(www.11st.co.kr)를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티셔츠’의 수익금 전액은 결식아동과 학대로 고통받는 어린이에게 지원된다.

이씨는 지난 2006년부터 어린이재단 강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매년 작품을 기증하는 등 학대받는 아동들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고 어린이재단은 전했다.

아동 후원 및 티셔츠 구입 문의는 어린이재단 희망나눔센터(1588-



1940)로 하면 된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대 풍수지리학 무료 공개강의=23일(토) 오후 2시~5시 중앙도서관 5층, 책자 무료 제공. 062-670-2161, 011-609-8117.

▲호남해바라기 아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장애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 지원 및 심리 치료 등 윈스톱 서비스. 062-232-1375, www.forchild.or.kr

▲푸른복지 문화센터 무료 수강생 모집=호패선, 리본공예, 웃음치료, 칼라믹스, 종이접기, 댄스스포츠 등. 010-9940-1769.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교육, 푸드아트레라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등 상담. 062-363-0442~3.

▲자비선원 명상 무료 지도=학생, 주부, 직장인, 마음의 평화를 원하는 분. 062-228-7701.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애차별 상담=국번 없이 1331, 우편방문·광주시 동구 제봉로 광주은행 본점 6층.

▲대한노인회 광주 취업지원센터 일자리 안내=광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 주민등록증 지참, 동구센터 062-223-8324, 서구센터 062-431-4529, 남구센터 062-432-0947, 북구센터 062-433-

6050, 광산구센터 062-942-0204.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률 무료 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바꾸기 등(실버에 한함). 062-365-8228.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무료 상담=보호가 필요한 아동 일시보호 상담, 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 및 시설 입소 안내. 062-222-1095.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 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 문의 062-363-2240.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아동상담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미혼모 시설 입소 안내. 062-227-8877.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문의 062-652-1366, 062-434-1366 www.gene-korea.com

▲광주생명의 전화 무료 상담=24시 전화 상담 전국 공통 1588-9191, 광주 062-223-9191. 면접 상담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모집

▲인우회 회원 모집=광주지역 전·의경 전역자들의 모임, 회장 019-277-0007.

▲트롯트 가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모집=누구나 환영. 017-661-0991.

▲사랑의 배움학교 문해 한글과정 자원봉사 교사 및 수강생 모집=성인한글 기초·중급·고급반, 중입검정고시반, 한문반, 광산구 하남 성심병원 인근. 062-951-5397, 011-9456-6037.

▲푸른하당 자원봉사 및 학생 모집=문해교육(한글과정), 초등·중등 과정, 검정고시반. 062-529-1188, 010-9940-1769.

▲디딤돌 장애인아학 교사·학생 모집=초·중·고 졸업을 준비하시는 장애인 및 수업을 만들어갈 선생님, 오치4거리에서 도보로 3분. 010-3423-1567.

▲광주FC 축구회원 모집=매주 토요일 오후 운동장 서강고 운동장. 017-656-3431.

▲한마음 장애인리활 생활센터 장애인 사물놀이 모집=장구, 징, 팽과리, 북 함께 하실 장애인(손이 자유로우신 분), 약기 후원 받음. 062-431-8025, 010-9676-0828.

▲한국웃음요가연구소(소장 김영식 박사) 국제 웃음요가 지도자양성 수시 모집=웃음치러, 웃음요가 무료상담. www.hahayoga.co.kr 062-381-8254, 011-9374-7482.

▲황실 심자수 무료 수강생 모집=쿠션·시계·베개·주차중·방선·액자·지갑·핸드폰줄 제작 등 무료 교육. 062-512-4000, 062-528-8500.

▲늘 기쁜 지역 아동센터 공부방 무료 수강생 모집=초등학생, 방과후속제 및 학습 지도. 062-511-6771.

▲전통문화예술단 굴림 무진음악단·은빛국악단 회원 및 강습생 모집=풍물반(수·오후 3시), 난타반(목·오후 3시), 장구초보반(화·오후 7시 30분), 중급반(월·저녁 7시 30분). 062-523-0474, 010-2658-0876.

▲북구 한울복지재단 가곡 노래교실 ‘참고운소리’ 회원 모집=55세 이상 가곡을 사랑하는 남녀. 062-572-0129.

▲장애인 차량봉사=장애인 차량봉사 동행 서비스, 장거리 광주일원(담양·나주·화순) 등 2~3일전 예약시 가능. 0505-206-0106.

부음

▲강순남씨 별세 임창환(자영업)·연환(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금숙(자영업)·형신(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효신씨 모친상 선결월·나하주·이재민씨 빙모상=발인 6일(수) 학동 금호장례식장 201호. 010-8666-8139.

▲강용식씨 별세 천규·천호(개인사업)·시열·수현씨 부친상 김점식(자영업)씨 빙부상=발인 6일(수) 송정장례식장 1호실. 062-941-4400.

▲조규단씨 별세 박항규·정숙·정미씨 모친상 윤지영·오양석씨 빙모상=발인 6일(수) 각화동 그린장례식장 9분향소. 062-250-4409.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가족납골묘 특별분양 1월 (062)222-0201